第303回國會
(定期會)

平昌冬季올림픽및國際競技大會支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3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11月10日(木)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1. 업무현황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바. 2014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사.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2.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3.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
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審査된案件

1. 업무현황 보고 ····· 2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바. 2014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사.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2.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박준선・백성운・유정복・차명진・나성린・신상진・조진래・정진섭・김정권・유정현・김영우・안형환・배은희・원희목・김성태・김성동・윤상현・신지호・신성범・강승규・이병석・유기준・강석호・이한성・임동규・이군현・이윤성・장제원・김재경・안경률・허천・성윤환・한기호・이종혁・김태환・최연희・김낙성・정하균・이재오・정의화 의원 발의) ····· 10

3.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이윤성・김태원・김선동・김정권・나성린・신성범・김세연・유정현・김무성・윤영・유재중・강승규・권영진・이한성・윤상현・김성식・권택기・진성호・서병수・강명순・홍사덕・이종혁・유성엽・정태근 의원 발의) ····· 10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최종원 의원 대표발의)(최종원・손학규・김진표・김우남・강기정・안민석・양승조・최영희・변재일・김재윤・이용섭・장병완・장세환・김상희・이종걸・조영택・천정배・정장선・강창일・백재현・김학재・박주선・송훈석・주승용・유선호・이석현・김재균・이성남・이춘석・박은수・박우순・신건・안규백・김부겸・박지원・전현희・전혜숙・전병헌 의원 발의) ····· 11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홍영표・백재현・우제창・김충조・유선호・최재성・김영환・강창일・손학규 의원 발의) ····· 11
7.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신학용・김재균・강창일・백재현・김영진・이낙연・김성순・최인기・이윤석・박지원・김효석・김성곤・김영록・오제세 의원 발의) ····· 11
8.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김학송・윤석용・김소남・유승민・이진복・김장수・손범규・김무성・한기호・김성회・이인기・김옥이・김동성・원유철・황진하・정하균・정수성・노철래・장윤석・성윤환・정해걸・강석호・김광림・이철우 의원 발의) ····· 11
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윤영・김금래・손숙미・강승규・이경재・최인기・한선교・이낙연・안형환・박준선・김성동・진성호 의원 발의) ····· 11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이해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오늘 회의는 업무현황보고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청취를 하고, 법률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일괄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업무현황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바. 2014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사.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예, 말씀하세요.

○이용경 위원 오늘 보고는 전에도 여러 번 보고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차이점만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에 관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신학용 위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좋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각 조직위원회보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마침 이용경 위원이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 조직위원회에서는 서류상으로 지금 대부분 다 위원들한테 제출되어 가지고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요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이 국제육상경기연맹갈라2011 행사 참석으로 모나코에 출장 중인 관계로 사무총장직무대행이 대신 출석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문경군인체육대

회 지원법안과 관련하여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이해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과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 7월에 정부와 강원도는 여야 의원님들과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님들께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 화해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겠다고 합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린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IAAF로 부터 역대 최고의 대회라는 평가와 함께 대구가 역대 두 번째로 세계육상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된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는 작년에 미흡했던 숙박, 교통, 대회 수지 등을 개선하여 언론으로부터 사실상 준비된 첫 대회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 국격제고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제대회로는 모터스포츠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 수상경기 저변 확대로 선진 스포츠의 계기가 될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40억 아시아인의 종합스포츠 축제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세계 170개국 젊은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현황과 그간의 주요 성과,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홍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되 조금 전 회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약해서 7페이지 추진현황 및 계획하고 그다음에 현안사항 위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각 대회의 개요는 서류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김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김기홍입니다.

지금부터 국제경기대회 추진현황 및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 8, 9쪽은 국제경기대회 추진현황 및 준비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시급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윤석용 의원님, 최종원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발의 법안에는 유치당시 비드파일상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며, 기존 대회지원법과는 달리 올림픽 유산 공고화 및 지속 발전을 위해 올림픽특구를 새롭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법적 기반을 토대로 동계올림픽 대회시설 건립 및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평창조직위원회는 10월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조직위원을11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무처 인력구성에 대해서는 강원도, 조직위원회,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무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이 문화·환경·경제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대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 내에 문화예술·관광·콘텐츠·홍보부서 관계자와 외부전문가로 대회준비 TF를 구성하여 7월부터 분야별 준비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쪽입니다.

대회운영 기업 KAVO를 청산하고, 향후에는 대회 운영을 조직위원회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F1코리아그랑프리와 K-pop 등 문화콘텐츠를 연계시킨 기획들이 관람객 증가에 기여했다는 판단하에 향후에도 스포츠와 문화·관광프로그램을 융화시키는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20일 유선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F1 대회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옥외광고 수익금을 대회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입니다.

조정은 올림픽 메달이 14개가 걸린 주요 종목으로 유럽 지역에서는 선진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탄금호는 2004년 전국체전, 2007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곳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치르기 위한 주요 시설을 현재 건립하고 있으며 12년 9월에 경기시설이 준공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2012런던올림픽 아시아 지역 조정예선대회를 개최하여 대회 운용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특히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국가대표를 구성하고 외국인 코치 지도하에 연간 250일 이상의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조정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수상스포츠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입니다.

'영원한 전진'을 모토로 출발한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서 17번째로 개최됩니다. 문화부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경기장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인천시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천시가 10월 26일 주경기장 국고지원 요청을 포함해 2차 시설 사업변경계획을 요청해 와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총리가 위원장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주경기장 국비 지원 문제는 정부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경기 종목별 세부실행계획을 내년 12월까지 수립하여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입니다.

광주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기장 3828억 원, 도로 870억 원, 총 4698억 원의 사업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광주시가 연내 시설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해 오면 관계부처 협의와 총리가 위원장인 대회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12년 정부예산은 234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간이예타 결과가 정부예산 심의 이후에 통보된 관계로 198억 원 정도의 추가 시설비가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끝으로 대회별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는 민간기업 KAVO를 청산하고 대회 운영을 조직위원회 주도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 및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을 통해 국제경기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3충주세계선수권대회는 근거 법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경기장 건립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시설사업계획이 가능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승인되도록 광주시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

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이해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탁월한 식견과 높은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산적한 국정현안 처리 등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라남도가 F1 대회를 추진해 오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2년 연속으로 1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함으로써 F1 대회와 모터스포츠의 국내 정착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대회는 작년에 문제가 됐던 극심한 교통, 숙박과 편의시설 문제 등도 대폭 개선돼서 대회 운영 측면에서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F1 대회 붐 조성으로 모터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는 등 올해를 계기로 향후 F1 대회의 성공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F1코리아그랑프리는 세계 180여 개국에서 6억 명의 인구가 TV를 통해서 시청했습니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유럽국가에서는 TV 시청률이 40%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높여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개선 보완을 통해서 F1 대회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 주고 전남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F1 대회는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고 관광, 고용 등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도 한 3~4개 국가가 새로 이 대회를 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F1 대회를 개최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경주장 건설비와 대회 운영비를 국가나 국영기업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F1 대회는 전남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는 판단하에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F1 경주장과 연계한 고품질 모터스포츠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난 10월 정부의 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F1 대회의 지속적 개최를 위해서 마케팅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경주장을 상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터스포츠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F1 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F1 대회 운영 주체를 제3섹터 민간 법인에서 조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F1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주동식 기획본부장입니다.

신중석 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올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주요 업무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박종문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봉 조금 이따……

박준영 조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재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이해봉 예, 하십시오.

○이학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또 그렇게 동의 부탁을 하셨는데 지금 조직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좍 하시고 또 실무적으로 또 하시고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무한정으로 흐르니까 그냥 위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거기 인사말씀에서 하시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도 되고 또 그 시간에 의견 개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종문 사무총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되 여기 8페이지 향후 과제부터 한 2페이지 정도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조직위원회가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다 내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무총장이 나와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면 어떨까요?

○권성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말씀하세요.

○권성동 위원 조직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중요 사안에 관해서는 인사말씀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보고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업무 내용이 숙지가 되어 있어서 굳이 사무총장 보고가 필요 없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실 때 인사말 외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간단하게 이 뒤에 책자 내용을 보고해 주는 것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모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용경 위원 거기에다가 위원장님이 보고하실 때 인사말씀 같은 것은 빼도 되겠어요. 여기 다 도와주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감사니 이런 것 다 빼시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안건으로 들어가셔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나오셔 가지고 인사말씀은 일단 생략을 하고 과제 중에서 보면, 사무총장이 보고하는 내용 중이었는데 과정 다 생략하고, 예를 들면 포뮬러원 같으면 8페이지의 향후 과제하고 현안 건의사항하고 이것만 보고를 해 주면 되겠는데,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직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사무총장이 알고 있고 조직위원장님은 전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보고를 조직위원장 보고하고 또 사무총장 보고 중에서 어느 것을…… 위원님들, 관계없습니까?

○권성동 위원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게끔, 알아서 보고하게끔 하고, 사실 조직위원장님이 질의응답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예, 알겠습니다. 모두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인사말씀은 생략하시고, 그리고 거기 마지막 보면 과제라든지 건의사항이 한 두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되 그것은 조직위원장님이 직접 보고를 해 주시든 또 사무총장이 보고를 해 주시든 그쪽 조직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지금은 앞에 위원장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포뮬러원에 대해서는 박종문 사무총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사무총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회에 이어서 금년도 대회가 매우 성공적인 대회 개최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회 수익구조 등을 개선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후원 참여 확대라든가 티켓 시장 개척 등 마케팅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고요. F1 대회가 국가브랜드를 걸고 치르는 대회임을 감안해서 국비 지원 등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대회 수지구조 개선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장의 서킷 시설 수준이 국제 수준임을 감안해서 상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개척 분야인 모터스포츠 산업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 타당성예비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F1 지원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F1 대회를 추진하는 체계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라남도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F1 대회 추진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의 지원법 개정이 일부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 중에 이 지원법이 개정되어서 저희 F1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F1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국비 지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대회에 이어서 금년 대회까지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국비 지원이 절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국가브랜드를 걸고 치르는 F1 대회가 전라남도만이 담당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를 위해서 지원법에도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명시해서 운영비 외에도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1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개최비용의 약 30%인 한 300억 정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사무총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아주 간단하게 성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 홍승활 보고에 앞서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대구가 세계 육상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구를 세계육상도시로 지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김범일 위원장이 세계육상도시 지정 트로피 수상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야별 추진실적, 대회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평가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먼저 자체 평가 미흡한 사례로, 대회 초반 미디어 등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 지연 등 수송 문제와 프리미어 라운지 식음료 서비스가 일부 미흡했습니다. 즉시 수정 보완은 했습니다마는 차기 국제대회에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IOC, IAAF, 언론의 평가입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과 라민 디악 IAAF 회장은 최근 다섯 번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중 대구가 가장 완벽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시민의식 만장일치 만점', '대구가 보여준 지방의 힘', '세계적 도시로 스타트', '문화·경제도 새롭게 도약' 등의 기사로 대회 결과를 호평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가 이 자리에 계시는 이해봉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서 비롯되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홍승활 사무총장직무대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관한 보고입니다마는, 이연택 조직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만전을 기하여 역대 아시안게임 대회와 비교해서 차질 없이 비교적 앞서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동경에서 개최된 OCA 총회에서 '인천대회의 모든 과정이 매우 빠르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아시안게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공식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하신 지도 편달의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기회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의 재정난을 감안해서 주경기장 및 테스트게임인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의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법적인 근거를 주관하는 법

규 개정, 그리고 각별한 예산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한 업무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장 이해봉 이것 지금 보니까 조직위원장님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보니까 지금 대회시설 건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다음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정의화 조직위원장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정의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정의화 반갑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직접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화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윤석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대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유니버시아드는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참여하는 유일한 종합스포츠대회입니다.

특히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미래의 지성들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아주 커다란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는 작년 2월에 출범한 이후에 2015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준비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Light Up Tomorrow'라는 슬로건 하에 액션플랜, 경기진행 계획, 장소별 계획 등 대회 운영의 기본 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경기장 개보수 등을 위한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선수촌 건립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 홍행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해서 대학생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외국어스쿨 운영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진현황 3쪽에서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국제기구인 FISU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내외 협력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회 운영능력 배양을 위해 개최되는 세계대학배드민턴 선수권대회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광주하계U대회는 기존의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지만 올림픽 규모에 버금가는 국제행사인 만큼 적지 않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고 민간기업의 후원도 상당히 요구되어서 국회 차원의 국가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2012년 국비 지원은, 정부안으로 제출된 234억 원은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신설 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서 198억 원도 추가 반영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건의 말씀 올릴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후원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조 바랍니다.

우리 조직위원회와 광주광역시는 2015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정의화 조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역시 인사말씀 생략하시고 건의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해봉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다른 조직위원회와는 달리 지난 10월 19일 날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계올림픽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업에 참여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책무가 주어진 만큼 열심히 역량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은 잘 아시는 대로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열립니다. 모두 7개 경기, 15개 종목, 98개 세부종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은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개최지인 강원도의 역할, KOC의 협력, 전 국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특히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모든 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조직위원회 사무처도 절약과 실질, 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림픽 마스터플랜의 조기 수립, SOC와 경기장 건설 등에 우선 집중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것이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제정입니다, 이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내년도 필수 예산 확보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의 경우에 경기장 건설비에 5404억 원, 그리고 교통인프라에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를 비롯한 16개 사업에 4조 7000여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IOC와의 약속 그리고 대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특히 경기장 건설비의 경우에 현재 국비 지원율이 일반 규정으로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비 지원율이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특별히 건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김진선 조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건의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이시종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이시종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대회 개요는, 2013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충주 탄금호에서 열립니다. 80개국 23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2012년 내년도에 프리 이벤트(pre event)라고 해서 런던올림픽 조정종목 아시아지역예선대회가 내년 4월 달에 충주 탄금호에서 개최가 됩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면, 5페이지의 예산은 전체 930억인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은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지원법 입법 건의입니다.

맨 밑의 건의사항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방금 건의했습니다마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아직 없지만 유럽에서는 단일 종목으로는 3대 메이저리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축구, 육상, 조정 이것이 3대 메이저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건의 올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교통망은 수도권에서 접근하는 것 위주로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이남지역, 2500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 이남지역 주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접근하는 교통망에 대해서는 거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도를 봐 주시면, 이것 한 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 지도를 봐 주시면, 건의사항과 같습니다마는 청주에서 충주에서 제천까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평창까지 35㎞인데 이것만 추가로 해 주면 호남지역 분들, 영남지역

분들, 충청권지역 분들이 모두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타고 제천을 거쳐서 평창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아니면 철도가 호남선 철도, 경부선 철도, 충북선 철도가 연결되는데 충북선 철도가 청주에서 충주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원주까지만 철도를 연계해 주면, 원주에서 평창, 강릉 가는 철도가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 연계되면 호남지역 분들, 영남지역 분들, 충청지역 분들이 철도를 타고도 평창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그것은 4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주국제공항이 있는데,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주 관문공항으로 쓰지만 유사시 대비해서 청주국제공항을 평창동계올림픽의 관문공항으로 같이 좀 활용해 주는 것을, 그래서 육성해 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2007년도에 충주하고 충북도가 신청을 해서 2009년도 유치가 확정됐고 지난 8월 달에 대회기를 인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선수권대회는 유치할 때부터도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충주시민들하고 충북도민들 일부만 이렇게 했지 전혀 국가에서 관심이 없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걸어왔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치할 때 아무도, 언론에서도 비쳐지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이시종 조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경기대회의 조직위원장님이 보고를 다 마치셨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는 방금……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이용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충주조정경기대회 그것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이시종 예.

○이용경 위원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이요, 이것을 유치할 때 IOC에다가 약속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뭘 약속했는지 영문으로……

거기 공식 언어가 영문입니까, 불어입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불어하고 영문입니다.

○이용경 위원 그러면 영문으로 된 것을, 약속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한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다음에 대구 경기는 밸런스 시트(balance sheet) 수익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이익이 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 홍승활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이용경 위원 아직 결산 안 됐습니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 홍승활 예.

○이용경 위원 그것 언제 나옵니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행 홍승활 아마 12월 20일경 되면 나올 겁니다.

○이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없습니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2항에서 9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2.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박준선·백성운·유정복·차명진·나성린·신상진·조진래·정진섭·김정권·유정현·김영우·안형환·배은희·원희목·김성태·김성동·윤상현·신지호·신성범·강승규·이병석·유기준·강석호·이한성·임동규·이군현·이윤성·장제원·김재경·안경률·허천·성윤환·한기호·이종혁·김태환·최연희·김낙성·정하균·이재오·정의화 의원 발의)

3.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이윤성·김태원·김선동·김정권·나성린·신성범·김세연·유정현·김무성·윤영·유재중·강승규·권영진·이한성·윤상현·김성식·권택기·진성호·서병수·강명순·홍사덕·이종혁·유성엽·정태근 의원 발의)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최종원 의원 대표발의)(최종원·손학규·김진표·김우남·강기정·안민석·양승조·최영희·변재일·김재윤·이용섭·장병완·장세환·김상희·이종걸·조영택·천정배·정장선·강창일·백재현·김학재·박주선·송훈석·주승용·유선호·이석현·김재균·이성남·이춘석·박은수·박우순·신건·안규백·김부겸·박지원·전현희·전혜숙·전병헌 의원 발의)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홍영표·백재현·우제창·김충조·유선호·최재성·김영환·강창일·손학규 의원 발의)
7.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신학용·김재균·강창일·백재현·김영진·이낙연·김성순·최인기·이윤석·박지원·김효석·김성곤·김영록·오제세 의원 발의)
8.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김학송·윤석용·김소남·유승민·이진복·김장수·손범규·김무성· 한기호·김성회·이인기· 김옥이·김동성·원유철·황진하·정하균·정수성·노철래·장윤석·성윤환·정해걸·강석호·김광림·이철우 의원 발의)
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윤영·김금래·손숙미·강승규·이경재·최인기·한선교·이낙연·안형환·박준선·김성동·진성호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이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역시 제안설명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서면으로 하지요.

○**신학용 위원** 유인물로 하면 안 될까요?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합시다. 지역구 다 있으니까……

○**위원장 이해봉** 이게 특별하다고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이한성 의원** 간단히 30초 안에 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30초 넘으면 알아서 해요.

○**이한성 의원** 존경하는 이해봉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 군인 간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 군사체육의 발전, 그리고 범세계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8년 2월에 프랑스, 덴마크, 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되었고, 우리나라는 1957년에 그리스의 추천으로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 총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CISM 측이 이 개최국 협정서를 체결하여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대한민국 문경 개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군인스포츠 교류 및 군사외교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원활한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 주관기관으로 설립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회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체육진흥과 국가발전, 군인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봉**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밖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의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봉 예, 그러세요.

○이용경 위원 평창 조직위원회 조직구성…… 지난번에 창립하셨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이용경 위원 조직도를 포함하는 운용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봉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대체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류환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되, 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대단히 참고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최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들은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 무상사용 등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 부담금 근거 법률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회 관련시설의 범위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범위, 사업계획 승인 등의 다른 법률상 인·허가 의제 범위,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신학용 의원안은 프레대회 지원근거와 조직위원회의 옥외광고사업 및 기부금품 모집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레대회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의견 조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안은 대회시설 사업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당 인·허가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F1대회의 운영체계가 기존의 대회운영기업 중심에서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대회 개최권자로서 대회운영기업의 지위와 현행법상 대회운영기업의 수익사업 근거와의 관계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2015년 경북 문경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회시설 사업계획 수립권자와 대회 관련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일반법으로서 지원대상이 되는 대회 및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회유치 승인 절차와 대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해봉 수석전문위원, 보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질의순서를 정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거수하시면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

윤석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각종 국제경기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정말 조직위원장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특히 장관님한테 부탁을 올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장애인경기대회는 아주 소외받고 있습니다. 대구육상경기대회도 참 성대하고 성공리에 열렸습니다마는 장애인 시범게임은 너무 보잘 것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먼저 부탁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성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나 장애인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면 이게 평창의 잔치입니까? 강원도 잔치입니까? 대한민국의 잔치가 되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용 위원 뭘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잔치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지요.

○윤석용 위원 그런데 국가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데 사실 모든 게 돈으로 귀착이 됩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모든 전액을 사실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데도 있고, 독일도 75%를 하고……

특히 하계대회에 비해서 동계대회는 건설비가 엄청 들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래서 산간지역이고 제반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데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신경도 써야 됩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지금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방자치단체 중에 중간쯤 됩니다.

○윤석용 위원 예, 아주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은 정말 국가잔치 같으면 국가가 대폭적으로, 사실 제 욕심 같으면 정말 100% 지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장애인게임이 같이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고, 또 IPC에서도 장애인이 최우선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창하고 용평하고의 어떤 고속도로라든지 도로 계획은 있습니까,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직은 지원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용 위원 그걸 빨리 해야 되는 게 도로를 단시간에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선수단이나 임원들을 갖다가 평창에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용평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또 위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또 평창 알펜시아도 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시설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면세점을 꼭 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면세점을 이용하면서 많이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인천아시아게임 준비를 하시는데, 아시아게임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동시에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하도록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위원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래 또 뉴스에 보니까 인천이 지금 재정이 거덜나게 되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아시아게임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3년 남았으면 장애인아시아조직위원회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시장님이나 여기 조직위원장님들 많이 오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윤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도 같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평창은 2018년인데도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2014년 지금 당장 코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는 준비 안 한다 이것은 국제 망신이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꼭 전해 주시고, 시장님도 제가 얼마 전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예.

○윤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정해봉 지금 윤석용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봉 예, 장관님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어제 예결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동계대회와 하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계대회는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동계대회는 산악지역 또는 아주 소도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고지원 비율이 보다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정자립도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 비율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체육대회와 같이 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민 위원 제가……

○위원장 이해봉 가만, 지금 미리 신청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노영민 위원 왔다갔다 그렇게 하십시오.

○권성동 위원 예, 저쪽 먼저 하시고요.

○위원장 이해봉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알겠습니다.

순서를……

노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위원 먼저 충주조정대회의 이시종 조직위원장님, 2013년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준비하면서 지원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이시종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휘장사업이라든지 광고사업 같은 거 하는 데 지원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지원법에 같이 들어가 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노영민 위원 그러면 성윤환 의원께서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이 있습니다. 오늘 문광부의 최광식 장관님께서 아까 업무현황 보고한 내용 10페이지에 의하면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대회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성 의원님이 발의한 법 제7조제2호에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이시종 예.

○노영민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지원 근거법이 없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지원 일반법 제정 시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노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종 조직위원장님, 2013년도 대회가

끝나고 충주경기장을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에 조정·카누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이시종 예.

○노영민 위원 현재 충주시에서 1900석 규모, 고정식이 1100석이고 가변석이 800석입니다. 이렇게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필요한 국제 규격은 3000석입니다. 1900석의 충주경기장을 사용한다 해도 1100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중복 투자,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더라도 가변석 800석을 고정식으로 건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이시종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 안 될 경우에는 그 주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좌석은 아니더라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위원 문체부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거는 아마 지금 실무선에서 고정석과 가변석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 놔도 사실 나중에 그만큼 필요 안 하기 때문에 고정석·가변석,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민 위원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지원법률안의 제정 시 사업계획의 승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 대표발의한 법 제일 마지막에 특례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철도건설법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그리고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지도 5개년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 기반 확충을 위한 기존의 어떤 사업 중에서 반드시 연계해서 이번 기회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된 기반시설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런데 여러 부처하고도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실무적으로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개 평창올림픽에 대한 접근성, 도로를 얘기할 때 항상 서울 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에서 평창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도 역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노영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중간에 답변 다 받았지요?

○노영민 위원 예.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 이시종 제가 잠깐만 답변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수도권 이남지역의 주민들이 2500만인데 2500만이 쉽게 접근하려면 어차피 충청북도를 경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고속화도로, 철도를 연장해서 제천에서 평창 간 고속화도로만 연장하면 되고요. 충주에서 원주 간 철도만 연장하면 2500만 수도권 이남지역 주민들이 고속화도로와 철도를 타고 평창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이용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위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위원입니다.

주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이 전부 다, 다른 올라온 것도 다 비슷하지만 아무튼 보조를 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인데 보조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위원이 검토가 된 겁니까? 전문위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가 된 거예요?

○전문위원 석영환 조사관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박혜진 위원님, 아직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되지는 않았는데요, 총 사업비가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평창 비드파일상으로는 그 경기장 시설은 30%고요, 도로시설은 동계시설이기 때문에 70% 지원입니다.

○이용경 위원 그러면 이러한 법안을 갖다가 만약 우리가 결정하려면 그 예산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은 크게 보면……

○이용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위원장님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러 가지 지원법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래도 위원들이 감을 가져야지 어떻게 진행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이것이 기본적인 저의 질문이고, 거기 답안은 없으시지요,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예산은 실시설계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이용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왔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다 나와 있습니다. 비드파일 제출할 때 이미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것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또 어떤 법은 예를 들어서 소급해서 보전해야 되는 이러한 요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보조금 법령이 이미 있어 가지고 다른 국제경기에 있어서는 30%를 국비로 지원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법이 있는데 평창만 이거를 갖다가 특별히 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 지원해야 되는 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저희가 같이 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올림픽특구 설치 이것도 제가 IOC에다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특구를 설치하는 것은 약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약속했는지, 특구도 경제적인 특구라든지 행정적인 특구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이 2018년까지 진행되는데 이러한 정부 돈을 쓰는 데는 항상 감사가 따르지 않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이용경 위원 여기에는 감사를 어떻게 받게 되어 있어요? 다 일이 끝난 다음에 받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그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중간중간 단계에서 필요하면 받을 수도 있고요.

○이용경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회계감사는 마지막에 7년 뒤에 가서 받으면 더 일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조직위원장님께서 요구해서라도 중간에 한번 외부의 시각으로 점검을 중간중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답변 다 들으셨지요?

○이용경 위원 예.

○위원장 이해봉 다음은 권성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성동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기장 건설할 때 국비 지원비율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30%입니다.

○권성동 위원 30·7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비 지원비율은 몇 %입니까,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요, 제가 공식적으로 딱 말씀 드리기는 뭐하고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권성동 위원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니, 비드파일 제출할 때 올 1월 거기 보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경기장 건설비용의 100%를 공동 보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고, 또 제출한 비드파일에는 국비 지원을 최소한 50%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본문 건설계획표

에는 국비 지원비율을 50%로……

○권성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최지역의 재정자립도를 한번 볼게요.

강릉 24.3%, 평창 19.9%, 정선 20%로 전국 평균 52.2%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이고, 인구가 일단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 맡겨 뒀을 경우에는 지자체는 부도 상황에 직면합니다.

어차피 이제 올림픽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고, 또 이런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국격을 이제 세계만방에 알려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시켜야 된다라는 인식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걸 결정하는 것이 기재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거든요.

○권성동 위원 기재부장관을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이 문제 논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직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안 했고요. 실무진에서는 계속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오늘 이 법안이 법안소위에 회부되고 하면 기재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관님께서 이거는 국무총리실로 끌고 가야 됩니다, 국무조정실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끌고 가서 거기서 난상토론을 벌여서 정부안을, 합의된 안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국회에다. 문광부장관은 올려야 된다 그러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이 법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권성동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국무총리실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 조정신청을 해서 정부의 단일안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00%, 노르웨이 90%, 독일 75%, 동계올림픽 개최할 때 국비 지원했거든요. 세계적인 근거도 있고, 또 올림픽이라는 것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국제경기를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국제경기도 등급을 맞추고, 그 지방의 재정자립도, 개최도시 재정자립도, 또 인프라시설,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국비 지원비율이 나올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강조했는데 문광부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총리실에서 여러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 인프라 구축 총 사업비는 사실상 경기장, 교통망은 거의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지금 동계올림픽을 강원도가 그토록 유치 열망한 거는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를 알리겠다는 목적 외에 역대 정부에서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강원도를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보자 하는 그런 열망이 커요.

그러다 보면 지역 업체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지역의 돈이 순환되게 하고 떨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평택을 보면 미군부대를 옮기다 보니까 평택시 개발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평택시 업체만 제한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평택시발전특별법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거는 제가……

○권성동 위원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건설업체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법에 이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특례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제가 좀더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철

새업체들이 많이 와요, 강원도에. 옛날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이런 업체들이 한 200개씩 와요, 다른 시·도에서 그 공사를 따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철새업체들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지금은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권성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위원 인천 계양을 출신 한나라당 이상권 위원입니다.

이연택 조직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시안게임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주경기장 건설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4.5%에 불과하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권 위원 지금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중앙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보기에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지금 주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권 위원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현재 인천시의 부채비율이 삼십팔구 %로 소위 정부의 40% 기준으로 볼 때 그야말로 위험수위의 최고수위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인천시 자체 재정의 형편으로 매우 어렵다고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권 위원 장관님, 지난번에 저희 인천 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원내대표실에서 장관님과 또 기재부장관님 두 분 모시고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결론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고하신 것 보면 이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이 4.5%에 불과한데 내년 상반기 중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미루어 놓으면 이것 2014년 적어도 6월 달에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늦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 장관님이나 기재부장관님이나 다 걱정하시는 것은 인천시에서 처음에 민자유치 운동장으로 하겠다, 전에 안상수 시장 계실 때 그렇게 했었고, 지금 시장인 송영길 시장님이 오시면서 '민자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바꾸자, 바꾸겠다' 그러면서 '국비지원 안 받겠다' 이런 각서를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변경신청을 냈었습니다.

○이상권 위원 그래서 지금 또 2차 변경신청 내가지고 이번에 1470억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왔다갔다 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게 될 경우, 내년 상반기로 미루어지게 될 경우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서 준공을 할 수가 없으면, 시기적으로 준공을 할 수가 없어서 아시안게임이 망쳐지게 되면 그때 책임을 그러면 인천시장한테만 돌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또 대한민국이 망신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 왔다갔다, 판단이 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미워서 안 해 주면 망신은 스스로 우리 정부가 당하고 대한민국이 당하는데 이 점을 명심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미워서가 아니고요. 위원님이 저보다 이것은 오히려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OCA에 낼 때 문학경기장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냈지요, 처음에. 그러다가 새로 경기장을 하겠다, 그 대신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었고 또 시장이 바뀌시면서 그러면 인천시 재정으로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변경신청해서 5월 30일 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6개월이 아직 안 되었지요, 사실. 5개월 되었는데 10월 26일 날 또 변경신청을 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10월 26일 날 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상권 위원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다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절차적으로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차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권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예.

○이상권 위원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다만 그런 절차를 따져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겠다 할 경우 현실적으로 준공이 제 시간에, 제 시기에 불능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또 인천시 재정이 아까 이연택 조직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한 각별한 배려 또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처럼 결론이 아예 부정적인 것으로 나온다면 이것 정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긍정적인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되고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이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이한성 위원, 김영진 위원, 이정현 위원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경북 문경·예천 출신 이한성 위원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해 놓고 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원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에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우리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때문에 혹시 지장을 받을지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 5월 달에 총회할 때도 가만히 하고 홍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참 조심을 해 주어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또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그때는 또 혹시 평창대회가 지장받지 않을까, 문경대회 때문에 국제대회가 연달아 유치가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같은 대회인 만큼 우리 문화관광부에서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것도 지원이 어떤 지원인가 하면 물론 국방부 행사입니다마는 같은 선수단, 군인선수지만 역시 대한민국 선수이고 이것 역시 또 문화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홍보 분야가 중요하고요.

또 제가 올해 브라질 대회에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군인선수들을 너무 병영에만 머물게 하고, 운동경기 있을 때만 나와서 경기하고 또 병영에 들어가 갇혀 있고 이것은 좀 대회 의미가 무색하지 않느냐? 그렇게 기량만 겨루게 하는 경기라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하고 문화를 소개하고 군인선수들도 온 김에 개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문화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기왕에 문경·예천 또 상주·안동·영주 지역에 많은 문화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진흥을 촉진시켜서 군인선수들이 경기 치르러 온 김에, 참여한 김에 국민들하고 문화적인 교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춤도 같이 추고 또 우리의 5000년 된 역사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군인체육대회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지원하실 테고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홍보라든지 문화적인 여러 가지 방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너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에 가려져 가지고 다른 대회가 지금 전부 다 홍보가 오히려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평창이 워낙 크고 비중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다 대한민국을 알리고 특히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분단국가로서 평화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의 평화염원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문화관광부에서도 좀 문화적 내지는 홍보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이번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 가지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중에서 재정정책상으로 또 법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

니다. 그중에서 프레대회를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워낙 약하고 흥행하자면 또 홍보가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재부차관 출신인 국방부차관께서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각종 대회 예비대회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군인체육대회는 아주 열악한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법에 있는 방안이 있고 또한 예산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관련 부처와 좀더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성 위원 예산의 전문가이시니까 국방부차관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입법기술적인 문제인데 우리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기초지자체 일곱 군데가 관여합니다. 문경이 주된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인근 안동 영주 상주 김천 포항 이렇게 관여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 단체를 놓고 입법기술상 약간 문제점이 있는, 약간 손볼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소위 넘어가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또 국방부의 실무자하고 해서 조문을 다듬는 작업을 미리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도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라든지 광주 이럴 경우에는 다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광역시를 뜻하고 있는데 이것은 7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광역지자체가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북도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도지사가 주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웃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사전에……

○국방부차관 이용걸 수석전문위원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이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한성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문제는 개최시기 조정 문제입니다. 지난번 본 특위에서 제가 정병국 문화부장관께 FISU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정을 공식으로 요구해 왔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했고 또 광주 U대회에 대한 일정과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일정을 정부부처에서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후로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대회 승인업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문화부 이 두 부처가 조직위원회를 불러서 먼저 유치를 한 광주 U대회 개최일이 7월 1일부터 15일이기 때문에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9월에 한다'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아직도 5월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국방부차관 이용걸 제가 답변……

○김영진 위원 우리 국방부차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는 문화부가 제출한 것이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이것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만드신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이지……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것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데, 저는 그 일정 조정이 돼서 우리 이한성 위원님하고 제가 만나 가지고 아주 감사하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다 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게 다 보고가 되어서 기정사실화 됐는데 아직도 부서 간에 이런 문제가……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미 9월로 조정됐는데 왜 문서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나가느냐는 그 말이에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이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문서 작성이 좀 잘못됐고……

○김영진 위원 그랬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문서가 잘못된 것이고 9월 1일로 조정이 된 건 분명하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미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두고 같은 해에 한 달 차이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다 또 오늘 공식 문서에도 이런 게 나가면 또다시 논란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국방부차관께서 국방부장관 책임 하에 이런 문제는 잘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국비 23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우리 최광식 문화부장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주 U대회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최소화하고 사후에 활용을 최대화하는 여기에 지금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3개 경기장과 훈련장의 대부분을 개·보수해서 활용하고 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수촌과 행사지원센터도 국내 최초로 재건축 방식을 추진해서 예산 절감과 선수들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았다고 언론이 지금 평가를 하고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3개 신설 경기장도 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부지 내에 입지하도록 해서 대학 스포츠 발전과 지역주민 여가 증진에 기여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제가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서 대회 시설 입지 허가를 위해서 교과부와도 적극적인 협조를 마쳤습니다. 광주시도 그 운영비 부담계획을 보내 왔습니다. 우리 문화부에서도 장관께서 적극 동의 입장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후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오늘 한 가지,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께서 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건의를 하신 바와 같이 내년 예산으로 시설비 198억 추가 반영을 지금 조직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 문방위에서 증액되도록 예결위로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김영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F1대회 지원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준영 도지사께서도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F1대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또 지난번에 우리 당 위원회에서도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도 있었고 또 적자 예산으로 과소 산정이 불거지면서 대회 포기와 심지어는 반납 여론까지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참 뼈를 깎는 노력과 환골탈태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올해 대회를 보면서 주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참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그동안의 염려 이런 것들을 다소 지금 불식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의 큰 원인 제공이었던 대회 운영기업인 카보가 손을 떼고 이제 전남도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면서 집행하게 된 그 처방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직접 주최가 되어 대회의 공공성이 확고하게 확보가 됐다 그런 점에서 F1대회 지원법에 대해서 문화부도 동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확인을 저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 동안 다섯 번 더 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잘 실시할 수 있도록, F1대회 지원 특별법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여야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주무부서인 문화부장관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도 그래서 이번 F1대회에 직접 총리님 모시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 보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남도가 조직위원회를 하면서 보다 더 공공적이고 또 책임 있게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어떤 근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측과 계약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하는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박준영 지사님께서 이번 대회를 치르시고 난 후 상황하고 F1대회 지원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우선 법은 본래 민간이 하면서 정부로 와 버렸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1대회를 한국에서는 처음 해 봤어요. 전문가가 없고 그리고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참 몰라 가지고 공사도 따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또 정부도 큰 관심을 갖고 해서 올해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 광고도 올해 처음으로 많이 받고 또 기업들도 큰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줬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하고 비교하면 한 4년 정도부터 안정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보다 가능하면 빨리 수익구조를 크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F1대회 홍보효과가 KDI 분석으로 2010년도 홍보효과가 한 5조 원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전남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사님, 조직위원장님 자격으로 오셨지요? F1 TV 광고효과가 KDI 분석을 보니까 한 5조 정도 된다고 그러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예,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게……

○이정현 위원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외에 국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우선 NYT에 기고할 사람을 사 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팔고 광고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188개국에 중계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맞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예.

○이정현 위원 유럽의 4개 국가에서는 결승 그 무렵쯤에는 시청률이 41%, 그 시간에 대한민국 영암에서 개최되고 있는 코리아 그랑프리가 생중계 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엄청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원이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많이 인색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우리 조직위원장님께서 참으로 안정화, 불과 2년 만에 안정화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애로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처음에 민간 기업들이 상당히 후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지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 줬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부족하다는 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이것 할 때, 저희가 계산을 잘 해 봐야 됩니다마는 한 번 개최할 때 보통 한 7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다른데 이것에 대한 운영비를 정부가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돈을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도 입장에서는 이것은 빚으로 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1년에 5조 원 이상의 국가 홍보효과를 내고 있고 전남도는 그걸 지자체에서 지금…… 정부의 그런 불로소득을 그냥 전남도에서는 생짜로 지금 메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정부에서 지금 관계자들 와 계신 분들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F1과 관련된 방송을 하나 봤더니 독일의 경우에는 개최되는 도시에 자동차를 주제로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합디다. 호텔도 자동차를 주제로 하고 그리고 객실침대도 스포츠카로 하고 또 지프차로도 꾸미고 심지어는 안에다 신호등 모양의 전등도 만들고 타이어로 만든 책상 이런 소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부 연관을 시켜서 굉장히 흥미를 끌고 재미있게 하

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기업이 말을 안 들으면 와서 사정할 수밖에 없게끔 아이디어를 내서 관광상품 개발해 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그리고 이번에 기재부에서 모터스포츠 부품들 R&D 단지 타당성 용역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영국 또 한국에 투자, 이렇게 세 군데에서 대규모 투자를 그 주변에다 하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정현 위원 하여튼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 그것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그런 대회를 좀더 보강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산업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른 문제로 문광부장관께, 지금 성윤환 의원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저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국제경기를 유치하다 보니까 사실 질이나 성과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너무 지나치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국가에 지나치게 또 의지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주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1분만……

○위원장 이해봉 예.

○이정현 위원 이 법안 검토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반법으로 해서 이제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도 하고 특히 기준을, 모든 기준을 철저하게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키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88올림픽이 개최된 지 지금 이제 몇 년입니까? 이십삼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제경기 유치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규정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사후책임도 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느 지자체나 어느 단체에서 정치인들 동원해서 세게 압력 넣어 가지고 유치해서 만약에 성과 제대로 못 끄집어내고 국가 예산만 갖다가 혈세만 갖다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을 첫째 철저하게 해 가지고 책임을 끝까지 묻는 그런 조항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 선정기준도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법안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재정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지원범위나 비율 이것도 분명하게 법률로 정해 가지고 불필요한 경쟁들, 불필요한 그런 사후에 나올 수 있는,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

○이정현 위원 그냥 동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24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것을 법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 예산 평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그래야 난립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 민주당의 최종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경기특위가 국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책임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걸 짚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경기대회 오더 따와서 주문받아 가지고 와서 경기 치르겠다고 돈 달라 하는데 이것만 하는 게 우리 국회가 할 일인가 하는 문제도 짚어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광부 장관님께 또 말씀드리겠습

니다.

국제경기특위가 할 일이냐, 문광부가 할 일이냐, 지자체에서 따온 모든 행사들을 검증을 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문광부가 하는 것, 국회가 하는 것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먼저는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와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원 위원 그런데 승인, 지금까지 안 된다 한 것 몇 건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가 정확한 숫자는……

○최종원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최종원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 제 생각은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이 두 번 실패해서 지금은 나왔잖아요? 유치가 성공적으로 되었고 앞으로 결과 문제인데 앞으로 7개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도시를 위주로 대전이다 대구다 이렇게 열려지는 것은 도로 SOC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강원은 특징상 어쩔 수 없이 산악이 있고 다리 놓고 굴 뚫어야지 도로가 되는 상황이고 겨울철은 유난히 추워서 눈도 많이 내리고 공사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했을 때 비드파일(bid file)에 나와 있는 약속한 부분만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지요.

특별법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상향 조정해 달라, 경기장 건설에 3 대 7이라는 역순환인데 7 대 3으로 하건, 아니면 외국은 100%도 있고 75%도 있고 90%도 있는데 왜 한국만 지역의 균등한, 눈치를 보면서 왜 이러느냐, 평창동계올림픽이 무슨 다른 게임이냐, 올림픽인데, '평창'만 빼고 동계올림픽인데 왜 자꾸 다른 눈치를 보면서 지역간 균형투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리 하나 놓으면 될 부분을 지금 여기는 다리 몇 개를 놓아야 됩니까, 고속도로 하나를 놓더라도?

경춘고속도로 가 보았습니까? 서울 잠실대로에서 바로 타고 경춘, 그 짧은 구간 동안 굴이 몇 개인지 다리가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강원도를 표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평창을 빼더라도 '동계올림픽에 한함' 이래서 특별법 제정해서 기재부에 모든 요청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 승인이 났고 또 문광부에서 승인된 국제경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되는 이 부분에서는 문광부가 앞장서서 그 경기의 완성을 위해서 각 부서를 만나서 돈 탈 일 있으면 돈 타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부처간 의견 조율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왕 문광부에서 결정 낸 경기에 대해서는 문광부가 앞장서서 거기에서 저쪽하고 약속했던 부분 그 이상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00%라면, 100% 경기장 시설 다 해 준다면 지금 현재 30%에 한 3500억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동계올림픽의 경기장 국가에서 다 100% 해 준다면. 만약에 70%다 그러면 앞으로 2000억을 더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0억이라는 돈도 실제로 뭐냐, 강원도의 재정 여건상 가용재정, 조금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그 돈이 1년 해 봤자 200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장 70%를 부담해 준다면 2000억만 더 투자하면 되는데 이것을 강원도만 한다면 다른 18개 시군 이것을 모든 것을 줄이고 2000억을 거기에다가 몽땅 집어넣어도 안 되는 상황이라 이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돈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안 그러면 평창이든 정선이든 골짜기를 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도시에다가 스키장 점프장 만들고 하면 도로 SOC 수천 억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광부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은 다른 데서 하자, 대도시에서'……

평창에 유치되었고 평창에서 한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적절한 타당한 문광부의 태도가 아닌가, 더 노력해 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라든가 돈 줄 사람들이 자꾸 걸고 넘어가는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이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IOC와 약속한

부분이 이렇게 되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냐, 뭐냐……

이것은 문화부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승인받지 않고 한 것은 F1대회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평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그래서 비드파일 제출할 때도 원래는 3 대 7인데 5 대 5로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최종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 신학용 위원입니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운영할까 하는데 그리고 좀더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날릴 수 있는 대회를 만들까 노력하는데 우리 인천아시안게임은 국가에서 약속한 30%도 왜 안 주느냐 뭐 이런 것으로 만날 장관님과 얼굴 붉히니까 저도 아주 기분이 너무 상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이라고, 물론 올림픽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은 특히 아시아인들에게는요, 제가 여러 국가 가 보니까 여기에 더 열광합니다. 왜? 올림픽 가면 금메달 은메달 하나도 못 따는데 여기에 오면 메달을 따 가니까 정말 아시아 국가들은 여기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겠지만 중요하다는, 외교 또 아시아에서의 우리 한국의 위상을 올리는 데는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갈려 가지고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더욱 우습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아시안게임 유치하는데 왜 안 대 주느냐고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인천시가 잘못하면 쪼개 나누어지고 정치권이 쪼개 나눠지고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얼마 된다고.

사정 변경, 정말 계획대로 잘 나갔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 폭락하고 투자는 빚내서 해 놨더니 다 엉망이고 도저히 재정자립 이제 위기 단체로 전락될 위기에 와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사정이 이렇게 변경되었으니까 솔직히 선수촌을 분양해 가지고 거기서도 이익 나오는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천은 그렇게 정부에 손 안 벌렸습니다, 전임 시장도 자신 있게 했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정말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30% 지원해 달라', 그런데 그 내용도 제가 2008년부터 주장했지만 '민자유치 좋다, 민자유치한 금액 빼고 나머지는 재정이니까 거기에 30% 달라', 그것은 합당한 논리다, 그것 다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민자유치를 하면 못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바꾸자, 어느 정도 거기까지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규모도 많이 줄였습니다. 아쉽기 때문에 많이 줄여 가지고 민자 없이 재정으로만 해도, 민자 빼고 재정이다 그러니까 민자했을 때보다 훨씬 싸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값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30% 달라는 것이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요,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또 총리도 우리 인천 의원님들이 모두 방문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천, 이것은 홀대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인천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 겨우 한번 독자적으로 커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경기 안 좋아서 어려운 상황에 잘못하면 반납해야 될 상황도, 다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신설 억제, 그다음에 타 시설 활용 많이 하자고 그래 가지고 충주 요트장을 저희들이 일단 좀 빌려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0석이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1900석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가변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못하면 규격이 안 맞아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와주실 것이면 이번 기회에

충주가 3000석이 될 수 있게끔 시설을 좀 할 수 있게끔 문광부에서 도와주시면 그것이 바로 인천 도와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꼭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답변 드릴까요?

○신학용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결위에서도 위원님하고 이 문제 가지고 누차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30%를 주겠다,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주경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반시설이라든지 다른 경기장은 30%이고 도로는 50 대 50이고 그다음에 주경기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문학경기장을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것이고요, 지금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인천시에서 새로 하겠다 해서 민자유치 얘기했고, 안 되자 인천시 재정으로 하겠다 해서 5월 30일 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 날 변경 승인 요청을 또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섯 달 만에 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도 필요하고 또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절차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사실 협의 중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올해예산에 안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넣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방위 위원님들도 그것이 옳다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해서 부대의견 정도는 넣어야 된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00석, 3000석인데 이것을 또 3000석을 했을 때 그것이 계속 사용되는 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00석으로 하고 나머지 1000석 정도는 가변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예, 이야기하세요.

○신학용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물론 우리 평창올림픽 지금부터 7년간 준비 확실히 해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비교하고 싶은 것이 왜 인천아시안게임은 정부 지원이 이렇게 타 대회에 비교해 가지고 적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부산을 비교해 보면 부산은 국비 지원 외에 특별교부세 210억, 지방양여금 306억, 516억을 지원해 줬어요, 행자부에서.

그다음에 전체 운영비에서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인천대회는 26.3%예요. 그런데 부산대회는 13.9%밖에, 그러니까 부담도 굉장히 우리가 높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옥외광고, 투표권 이런 것 해 가지고 총 750억 중에 50억 원이나 가져갔는데 인천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77억 원 18% 밖에 못 가져갑니다, 국가로 가 가지고 분배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정부 지원이 형평성을 잃어요. 4년 전에 했던 부산에 비하면 너무나 지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법을 낸 것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체육진흥법도 지금 개정안을 내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 달라, 저희 인천이 재정만 좋으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한다는 말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너무 쓴 것 같아서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해봉 예,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시설비 국비 지원율은 부산대회와 인천대회가 모두 보조금법 기준 경기시설 30%, 진입도로 50% 이내, 같습니다.

○신학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오히려 부산대회가 도로정비 국비 보조율이 45%로 인천대회의 50%보다는 적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학용 위원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지금 510억, 행자부에서 직접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정부 전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것은 문광부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신학용 위원 예, 그다음에 자체 수입 750억 원이에요, 옥외광고 특별법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거기는 약 31%가 충당됐는데 우리는 18%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때는 문광부가 했는데 개정이 돼서……

○신학용 위원 예, 개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신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계돼서 문광부장관하고 김진선 조직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경제올림픽도 얘기했고요.

○박병석 위원 예, 경제올림픽…… 경제올림픽이라는 것은 경제성을 확보한다 그런 뜻이겠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화올림픽이라는 점을 좀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서 동계올림픽에 반드시 남북단일팀을 만들어야 그것이 세계적으로도 성공하는 동계올림픽이 될뿐만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평화 협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두 분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평창올림픽이 남북이 같이 어떤 형태로든, 선수단이든 또는 그냥 참여든 동시입장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남북의 관계를 완화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올림픽정신에 맞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금강산관광 문제라든지 해서 오히려 국제적으로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하는 점에서 남북이 평창올림픽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박병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외에 평화올림픽을 올림픽 목표로 추가로 설정했고요. 또 평창은 지금 가장 분단의 상징지역인 강원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화해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특위에서도 많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당위성에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실천의 방법이 문제겠는데요, 이 문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우선 정부 각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라든가 또는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각 행정부처 간의 정무적인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한 실질적인 추진의 주체, 접촉의 주체를 정부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민간조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부담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우선 민간조직이 먼저 접촉을 하는 것이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박병석 위원 그리고 장관께서는 '동사모'라고 아세요, '동사모'? 잘 못 들어 보셨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10년, 2014년, 세 번까지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민간인들의 모임이 발족을 하였습니다.

○박병석 위원 지난 일요일 날 대전에서 '동사모'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전지부도 창립을 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경제적 지원은 없으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지금 특별히 지원되는, 조직위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박병석 위원 예, 제가 금년 6월인가 한번 대전에서 하는 것에도 가 보고 이번에 전국대회 겸 대전지부 창립대회를 한번 가 봤는데 민간 자발적 조직으로서 굉장히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치

르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이나 또는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하시고 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시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계올림픽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동계올림픽의 저변 확대, 인구의 저변 확대가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열기가 식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배려를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 경우는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지원할 수는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병석 위원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해봉 예, 이야기하세요.

○박병석 위원 F1 관계 좀 묻겠습니다.

F1이 이번에 두 번째로 치러졌는데 첫 번 대회보다는 상당히 진전됐고 또 국민의 관심사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이 F1대회가 서구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저변인구가 한정돼 있는데요. 이제 정부 지원을 300억 요청하시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는 좀 큰돈이지요?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우리가 수지적자를 맞추겠다, 그리고 구체적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하는 안을 내셔서 그것이 '아,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도면 그래, 단기간 좀 도와 줘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내셔서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는데 분석의 틀이, 맞출 기준이 각국이 다 달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4년 정도 그 후로부터는 궤도에 올라간다, 예컨대 나라마다 다 다르고 또 어떤 데는 전부 국가가 해 버리는 데가 있고 또 국영회사들이 다 부담을 해 버리는 데가 있고 이래서 이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산해 보는 것은 작년보다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 적자 폭이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내년에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들이라든가 또 저희가 개최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가변성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내는 데는 불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저희가, 그리고 지원해 달라는 액수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이보다 더 적게 그렇게 저희들도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전에 이상권 위원님이나 신학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관련해서 인천에서는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고 또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존에 약속되었던 것도 있고 절차가 행정적으로 자꾸 번복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다가 선수촌·미디어촌을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이익을 활용한다든지 또 민자를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포기하기 전에 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미리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그 문제의 답변은 우리 지원본부장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예, 지원본부장님, 중앙정부하고 미리 확인했으면 지금 같은 혼선이 안 왔을 텐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인천광역시아시아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이학재 위원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예. 그 당시 지금 송 시장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한 달 정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담아서 11월 달에 올리기로 했는데 실무과정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중앙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잘못했다, 그것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예.

○이학재 위원 그러면 중간에 국비를 안 받겠다 이런 문서를 보내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것을 해결을 하지 또 국비를 안 받겠다고까지, 협의도 안 하고 나중에 국비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 장관님이 저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국비지원 포기 공문은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하고 나서 또 저희 스스로 포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무자 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사업 승인 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건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난번에도 6개월 걸렸는데 그것을 결과를 다 내려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그로부터 또 한 5~6개월 걸리니까 도저히 시간상 그것을 내고 나서 착공을 하려니까 주경기장 공기를 못 맞춘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결론을 짓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 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협의도 안 됐고 국비도 또 안 받겠다고 최근에 얘기까지 했다가 다시 지금 국비 없으면 이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일면 장관님의 입장이,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또 한편으로 장관님, 만약에 인천시에서 저렇게 나와 가지고 진짜 아시안게임을 안 치르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문학경기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학재 위원 문학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왜냐하면 처음에 승인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학재 위원 그랬는데 문학경기장을 활용하는 절차는 벌써 2~3년 전에 다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것과 관련돼서도 한 2~3년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문학경기장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문학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기존에 충분히 다 됐었으니까 지금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아 이런 것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고 또 어떤 면은 사과를 받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은 이것은 인천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아시안게임을 어떻게든지 성공시키자, 이 부분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 하려고 했었던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다 물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는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3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라든지 절차의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은 따로 묻는다 하더라도 아시안게임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가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일단 10월 26일 날 변경 신청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달 만에 또 변경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절차가 필요하니까 절차를 진행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학재 위원 제가 1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예.

○이학재 위원 그런데 그 절차도 물론 관계부처 협의도 거쳐야 되고 제가 장관님 말씀 들었는데 또 정부 지원을 위한 회의도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의 어떤 태도나 입장이 나머지 기관이나 회의를 주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장관님께서 어떻든지 간에 아시안게임은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것은 국가위상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또 많은 280만 인천시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무슨 행정적인 착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아시안게임이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 이것은 인천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광부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정부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이학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신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위원 장관님,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주경기장 하고 싶어요. 인천시장도 주경기장을 포기하고 리모델링하고 싶어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 약속, 신뢰를 깨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유로 대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 곤란하지요. 그것 하기 싫은 줄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정부의 기본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단 일관된다는 말씀이고요. 왔다갔다 한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지요.

○신학용 위원 정부 입장이 일관된 게 절대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면 지역에서는 280만 인천시민 있는데 경기장 하나 가지고 하려냐, 이 기회에 하나 더 만들자, 다른 대도시에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4개, 5개, 10개도 있는 데 있어요. 280만에 하나밖에 없으면 되냐, 이 기회에 하나 더 만들자…… 그게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인천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기본 입장이 아까 이학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신학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을 이야기하니까, 왜 서구 주경기장을 지금 그것을 포기할 바에야 이제는 차라리 안 짓는 게 낫지요. 아시안게임을 안 하는 게 낫지 그것을 포기하면서 하면 인천이 지금 또 두 동강나라 그겁니까, 시민들한테?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경기특위에서 6년째 하고 있나,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인천아시안게임 이 경기장 때문에 정말 읍소도 많이 하고 사정 이야기하고, 답답해서 2008년도에 제가 장관한테…… 저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겠구나, 왜, 같은 여당 시장이고 하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2008년도부터 '좋다. 민자하겠다. 민자금액 뺀 만큼 다른 것은 우리 돈 들어가니까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 옳은 소리인데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못 해 주겠다', '그러면 무슨 법이 그렇게 돼 있냐? 그것 바꾸자' 그러면서 설득을 해 온 거예요. 문광부 직원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장관님한테 자꾸 이런 형식적인 문제 가지고 답변하면요 정말 저희들 속 답답해 죽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5월 30일에 그것을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학용 위원 제가 알아요. 장관님이 이때까지…… 왜 지금 경기지원본부장이 이야기 못 하는지 아세요? 미리 다 이야기 안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낼 테니까 좀 해 줘라', '절대 못 해 준다, 너희들'…… 그러니까 못 내는 것이지. 밑에 다 실무자들 의견 해 가지고 내는 것이지 그냥 말도 안 하고 냅니까? 확고한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해 봐야 너희들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내고 각서 쓰는 거예요. 포기하라는데, 그러면 차라리 버티고 있다가 허가나면 하지 왜 각서 쓰냐, 그 뜻 아니에요? 그러면 포기하라는 것이지요.

올 6월에 지금 각 경기장 다 시작하고 있는데 더 늦춰 가지고는 아시안게임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아시아안게임 포기해요? 그게 정부가 원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정부는 잘 아시겠지만 주경기장은 인천시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한테 자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지요.

그러나 지금 아까 이학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봐서 일단 변경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변경 신청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또 정부위원회를 거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학용 위원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인천 재정 상황만 좋으면 저희들도 안 떠듭니다, 이것 치사하게 정말. 너무 안 좋고 지금 재정, 이것 빚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빚내면 당장 재정위기단체로 해버린다니까 그렇게 하면 재정권 다 뺏겨버리고, 그것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나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지방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정부도 아시안게임이 잘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신학용 위원 하여튼 답변하실 때도 좀 우호적으로 '정말 그 사정이 이렇게 변경되었구나', 그것은 하나도 이해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무시하고 '이랬으니까 안 된다' 하니까 자꾸 답답한 것이지요. '문광부 직원들도 있는 그대로 이것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몇 번 변경했는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아마 썼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요. '그렇게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회의를 열어서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해 줘야지 '이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못 해 주게 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현재는 변경 신청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인천시가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신학용 위원 또 되돌아가요. 2008년부터 문광부장관한테, 유인촌 장관, 정병국 장관한테 만날 부탁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게 팩트지요.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벌써 2008년부터 불거졌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인했으니까 못 하겠다라는 답변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위에서 확고하게 이것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좋습니다, 그 답변. 그런데 이때까지 사정은 아주 다 생략해버리고 '시장이 와서 사인했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면서 와 가지고 질문을 하고 안타까움을 호소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버리면 뭐가 되냐 이거지요. 검토를 전향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경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이게 잘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권성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보면 제가 제출한 것이나 최종원 의원이 제출한 것이나 올림픽특구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 특구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좋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데 그 특구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그런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것이 공통적이란 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고 외국자본 유치 시에 각종 행정·세제상의 혜택을 주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구가 지정되는 곳이 산악지역이에요. 그래서 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데, 외국자본이 들어왔을 경우에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제 생각은 국내자본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국내자본이 투자되는 경우에도 뭔가 혜택을 줘야지 그 상권에 투자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내자본 투자 시에도 세제라든가 행정상의 특혜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공감하고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 올림픽특구가 그냥 동계스포츠의 메카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감사합니다.

○신학용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해봉 예, 질의하십시오.

○신학용 위원 조직위원장님, 제가 소요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을 보니까 옥외광고물 수익사업 허용과 관련 지원 대상기관 확대에 따라서 지원액이 131억 원 감소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 감소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다음에 개정안 설명 자료에 기부금품 모금 허용 개정 사유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주경기장 건립비 국고 미 지원으로 재정난 가중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통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 근본적인 대책 못 됩니다. 기부금품 모집해 가지고 그것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저희가 지금 주경기장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조직위원회 자체 재정계획 중에서 차질이 예상되는 수입 보전대책 그것이 광고수입을 좀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 그리고 또 자체 우리 기부금, 기타 후원업체를 유치하는 이런 것을 인천시 중심의 사업에 별도 하나의 예외적 허용을 바라는, 그래서 일부 보전하는 이러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주경기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천시로부터 우리 조직위원회가 재정보조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인천시의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 조직위원회로서는 인천시 보조금을 앞으로 40% 이상의 어려운 상황의 대비도 할 겸 우리 자체적인 수입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 방안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뭐 하면 기부금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인천시민들이 짜증납니다. 그런데 또 기부금품 하게 하니까 정말 이게 과연 우리 인천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조직위원장 이연택 그것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기부금은 안 되고 인천 유지들께서 자진해서 하고 싶어 할 때, 기타 그냥 하게 되면 또 세금 부담까지 따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라도 자진해서 하는 기부에 대해서 그런 부담을 가볍게 덜어 드리는 그런 취지의 정도로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우리는 인천시에서 많은 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이런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봉 보충질의십니까?

○최종원 위원 장관, 지원은 다 좋은데 수백억씩, 수천억씩 지원된 다음에 예산결산 보고에 관한 부분은 문광부가 받는 것입니까, 어디가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나중에 문화부가 받지요.

○최종원 위원 나중이라는 게 뭡니까?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기 다 끝난 다음을 얘기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렇지만 중간 중간 또 확인도 합니다.

○최종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결산 과정에 긴 시간이 있다, 그런데 한 5, 6년 지났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고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그러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보고받고 제대로 못 따진 문광부장관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일단 매년 그해그해……

○최종원 위원 매년 보고받으시고 그 보고받은 결과를 국회 국제경기특위의 위원님께 주시고 그래야지 그다음 내년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지금까지 돈 주는 것은 쉬운데 또 받는 사람은 내 돈 아니니까 쉽게 쓰고,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책임 못 지고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봉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심사한 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관계기관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문화체육부장관님과 또 관계기관, 조직위원장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추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각 경기조직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법률 제·개정과 그리고 그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지원 이런 요청들이 많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께서도 답변을 일부 하셔서 어느 정도 모두 위원님들이 수긍하셨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법률 문제는 우리 특위의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또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여기에서 법률을 정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예산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최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내년 예산은 지금 벌써 예산심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아마 예결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소속된 특위위원들 각 위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역에 모두 관련된 위원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에 관련된 경기지원 예산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정부 관계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만 이 과제가 그냥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기 과제로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법률은 우리가 필요하면 또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제·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에 정부지원위원회가 있다 그랬지요? 정부지원위원회에다가 이 대회 예산 지원 촉구 결의안을 양 교섭단체 간사끼리 합의를 봤습니다마는 결의안을 의결해서 정부에다 이송을 해서 정부로 하여금 각 경기조직위원장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지금 점심시간도…… 오늘 장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참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법률심사하고 나서 또 전체회의를 엽니다. 그때 양당 간사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권성동	김영진	노영민	박병석
신학용	윤석용	이상권	이용경
이정현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장윤석	최종원	황우여	

○청가 위원(1인)

임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전문위원	석영환
입법심의관	박명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체육국장	김기홍

국방부

차관	이용걸
국군체육부대장	김현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준영
사무총장	박종문
기획본부장	주동식
협력본부장	신중석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행	홍승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시종
사무총장	강호동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연택
사무총장	권경상
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정의화
사무총장	김윤석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진선
청산이양준비처장	김남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1. 7. 7 권성동·박준선·백성운·유정복·차명진·나성린·신상진·조진래·정진섭·김정권·유정현·김영우·안형환·배은희·원희목·김성태·김성동·윤상현·신지호·신성범·강승규·이병석·유기준·강석호·이한성·임동규·이군현·이윤성·장제원·김재경·안경률·허천·성윤환·한기호·이종혁·김태환·최연희·김낙성·정하균·이재오·정의화 의원 발의)

7월 8일 회부됨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11. 7. 26 윤석용·이윤성·김태원·김선동·김정권·나성린·신성범·김세연·유정현·김무성·윤영·유재중·강승규·권영진·이한성·윤상현·김성식·권택기·진성호·서병수·강명순·홍사덕·이종혁·유성엽·정태근 의원 발의)

7월 27일 회부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최종원 의원 대표발의)

(2011. 8. 10 최종원·손학규·김진표·김우남·강기정·안민석·양승조·최영희·변재일·김재윤·이용섭·장병완·장세환·김상희·이종걸·조영택·천정배·정장선·강창일·백재현·김학재·박주선·송훈석·주승용·유선호·이석현·김재균·이성남·이춘석·박은수·박우순·신건·안규백·김부겸·박지원·전현희·전혜숙·전병헌 의원 발의)

8월 11일 회부됨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9. 16 이한성·김학송·윤석용·김소남·유승민·이진복·김장수·손범규·김무성·한기호·김성회·이인기· 김옥이·김동성·원유철·황진하·정하균·정수성·노철래·장윤석·성윤환·정해걸·강석호·김광림·이철우 의원 발의)

9월 19일 회부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21 정부 제출)

9월 21일 회부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3 신학용·홍영표·백재현·우제창·김충조·유선호·최재성·김영환·강창일·손학규 의원 발의)

10월 14일 회부됨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0 유선호·신학용·김재균·강창일·백재현·김영진·이낙연·김성순·최인기·이윤석·박지원·김효석·김성곤·김영록·오제세 의원 발의)

10월 21일 회부됨